

검·경 수사권 조정에 '힘 세진' 경찰 악습·관행 '여전'

광주지방변호사회, 사법경찰 평가 결과

'고소취하 회유, 강압적 질문, 영장 없는 압수, 2년여 사건 방치...'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미흡한 수사력, 내로남불식 수사관행, 강압적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수사기밀을 유출해 법정에서 서기도 하고, 인사청탁용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경찰관들이 잇따라 검찰에 구속되는 등 스스로 신뢰를 실추하는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변호사회)가 18일 공개한 '2023년도 사법경찰평가결과'에 따르면 광주변호사회 609명의 변호사중 144명의 평가를 받은 광주·전남 사법경찰관 653명(평가 건수 1038건)의 평균 점수는 76.57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청렴 및 공정, 친절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2년여 사건 방치·성인지 부족 2차 가해·변호인 활동 방해 등 경찰관 평균 점수 100점 만점에 76.57점... 전국 평균 하회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광주 지역 경찰은 400여명 전남지역 경찰은 250여명이 평가 대상이었다. 이번 점수는 지난해 법관평가의 평균 점수(83.64점)보다 7.07점 낮다.

이번 평가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힘이 세진' 경찰을 변호인 조력 과정에서 수시로 접촉하는 변호사들이 '평가'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변호사회 회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사법경찰을 평가한 것은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고 평가결과를 발표한 것은 전국에서 최초다.

변호사회가 제시한 부적절한 수사 행태는 다양했다.

구체적으로는 '원래 피의자는 구속감인데 자신이 잘 봐주고 있음에도 피의자 변호사나 가족이 얼굴 한번 비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고소 사실 여부를 취할 것을 회유하거나,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사관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사례도 제시됐다.

조사 도중 일어서서 소리 치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한편, 시종일관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조사를 진행하는 수사관도 있었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영장도 없이 막무가내로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수집하는 상식밖 행태도 보였다.

변호인의 입회하에 정당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수사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박한 사례도 있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해 '해자가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수사관이 합의금 액수까지 정해 피해자와 변호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수사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 1년 8개월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고소장을 접수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피의자 신문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직무유기 사례도 많았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족상도례의 적용 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해 고소인에게 소 철회를 강요하고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률지식 자체가 부족한 수사관도 있었다.

광주시변호사회 관계자는 "평가는 하위 경찰관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와 관련한 업무 능력을 전체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도록 모범적 사례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우수 사법경찰관으로 남건중 광주경찰청 여성대상 범죄특별수사팀 수사관·홍길성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황치영 광주북부경찰서 수사1과 경계5팀 수사관을 선정했다. 경찰관서로는 광주동부경찰서(84.2점)와 무안경찰서(95.08점)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어린이공원 파손된 시설 방지

광주시 서구 풍암동 운리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이 파손된 채 위험하게 방치돼 있다. 18일 주민들에 따르면 시설 주변에는 안전 주의 안내문이나 표지판이 없어 2차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새벽밥 먹고 등교하는 고1

광주 '예비 고1' 1200여명 거주지 외 다른 구 학교 배정 통학 시간 1시간 넘는 곳도 학교 쓸림에 원거리 통학 늘어

광주지역 예비 고1 학생 1200여명이 올해도 자신의 거주 구가 아닌 다른 구의 학교에 배정됐다.

광주시교육청은 18일 2024학년도 고입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 1만1599명의 배정 고등학교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전형 요강에 명시된 배정 원칙에 따라 지원 순서와 상관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의로 학교를 지정하는 강제 배정 없이 지원자가 선택한 여러 희망 학교 중에서 배정했지만, 중학교와 고교의 위치 분포의 차이가 커서 일부 지역 학생은 통학 시간이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1시간 이상인 곳에 배정됐다.

광산구의 경우 중학교는 26개인데 비해 고등학교는 11개교에 그쳐 1152명이 복구와 서구지역 고교로 배정됐다.

그 영향으로 서구에서는 106명이 동구와 남구 등 다른 지역 고교로 배정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지원자들이 내신 성적과 대학 입시 유리권을 고려해 몇몇 특정 학교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해 원거리 통학생이 늘고 있다.

광산구의 한 사립고는 신입생 정원이 280인데 24명만 지원해 연쇄 배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교육청은 학교의 지리적 불균형과 고등학교 선택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27년 개교를 목표로 광산고(가칭)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미달 사태를 보인 사립고에 대한 법인 측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김중근 교육국장도 "무작위 전산 추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지만, 학교 선택의 쏠림 현상, 특정 학교에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등 배정에 어려움이 크다"며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영화 '길 위에 김대중' 관심 이어져

탄생 100주년 기념 영화 전국서 상영...단체 관람 등 쇄도

광주·전남에서 탄생 100주년을 맞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그린 영화 '길 위에 김대중'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길 위에 김대중'은 지난 10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 중이다.

영화는 다섯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며 네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와 세번의 대선 낙선을 거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생을 담고 있다.

17일 기준 6.8만명이 관람했으며 광주에서는 개봉 이후 일주일 동안 5023명, 전남에서는 3675명이 영화를 봤다.

광주를 배경으로 한 내용이 많아 시민들은 더욱 외닿는다는 후기를 남기고 있다.

은우근 광주전남춤통행동 상임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며 본인이 그리는 바람직한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평생을 애쓴 사람"이라며 "영화 마지막 장면이 망월동 민주묘지를 찾아가서 통곡하는 모습이 나온다. 김 전 대통령은 5·18 당시 맞서싸운 이들에 대한 마음의 빛을 평생 갖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잘 담긴 것 같아 뜻깊었다"고 말했다.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떠나 인간으로서 김 전 대통령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순탄치 않았던 여정에서도 뜻깊게 뜻하는 바를 실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노교 교수 등 5·18과 관련된 광주지역 인물의 모습도 담겨 있어 시대상을 들여다 볼 수 있어 좋았다"고 덧붙였다.

제작사인 '명필름'에는 단체 관람을 요청하는 전화도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극장과 광주독립영화관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추억이 있는 8090세대가 영화관을 많이 찾는다"며 "영화를 보고 난 후 김 전 대통령 패널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굿즈 등 기념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

광주 첫 민간 수소충전소 광산구 신촌동에 문 연다

광주 첫 민간 수소충전소가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에서 문을 연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22일 광산구 신촌동(682-5번지)에 '신촌 수소충전소'가 영업을 시작했다.

당초 지난해 1월 매일 수소충전소가 민간충전소로 첫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간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국비 25억과 민간사업자 E1축이 30억원을 들

여 조성한 신촌 수소충전소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하루 충전용량 700kg인 신촌 충전소는 지난해 5월 건축공사를 마치고 올해 1월 완성검사와 시운전을 마쳤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롭게 문을 여는 신촌 충전소는 합평과 목포, 장성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수소차 운전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서 운행되고 있는 개인용 수소차는 1262대다. /김다인 기자 kdi@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